

보도시점 2026. 9. 10.(목) 06:00 (목요일 석간) 배포 2026. 9. 9.(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경진대회 개최... "국민의 건강·안전을 최우선으로"

- 기후부·지방정부 협력으로 촘촘한 환경안전망 구축, 우수사례 전국 확산
- 기술지원, 실시간 감시 등 배출업소 관리 우수지방정부에 대통령표창 등 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방정부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굳건한 환경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0일 오전 나인트리프리미어로카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는 2002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배출업소 관리는 단순한 규제와 단속을 넘어 미세먼지, 악취, 소음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정부는 합동단속 및 계절별 맞춤 단속 등을 통해 매년 5만 1천여 개의 사업장을 단속해 왔다. 이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는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발생 가능한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통제하여 대국민 환경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6개 지방정부에서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발표하며,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진대회에서 발표할 우수사례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원·소통 확대 방안, △경기도 첨단장비 활용 스마트 사업장 관리, △경상남도 남해군 지역주민과 배출사업자의 상생을 위한 방음림 조성사업 등 6건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2025년도 지방정부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에 따라, 배출업소 환경관리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및 유공자를 포상한다.

광역지방정부 중에 성과가 우수한 강원특별자치도에는 대통령 표창이, 기초 지방정부 중 성과가 우수한 경상북도 경주시에는 국무총리 표창 등이 수여된다.

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배출업소 환경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계획.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책임자	과 장	원지영 (044-201-6160)
		담당자	사무관	서종렬 (044-201-6161)



□ 추진배경

- 지방정부 환경관리 우수활동 사례 발굴, 정보 공유,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지방정부 환경관리 업무역량 강화
- '26년('25년 실적) 지방정부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 지방정부·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유도

□ 행사 추진계획

- (일시) '26.9.10.(목) 09시 40분 ~ 16시
- (장소)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6층(서울 용산구)
※ (주소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25, 용산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180m
- (참석대상) 기후부, 지방정부 단속공무원 등 약 160명
- (주요 행사내용)
 - (유공표창) 배출업소 환경관리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 (표창) △대통령 1점, △국무총리 2점, △환경부장관 13점
(포상금) 7,000만원(지방정부 합동평가 결과 우수지방정부 대상)
 - (우수사례) 지방정부 환경관리 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
※ 시상금 총 260만원, 현장 심사를 통한 순위결정을 통해 시상대상 선정
 - (과징금 교육) 환경범죄 과징금 관련 제도 안내 및 협조사항
 - (기타사항) 환경법정교육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이용법